

테마특서

선수행 입문서

“근본·대승불교 본질적으로 같다”

‘불교입문총서1 근본불교’ 이종표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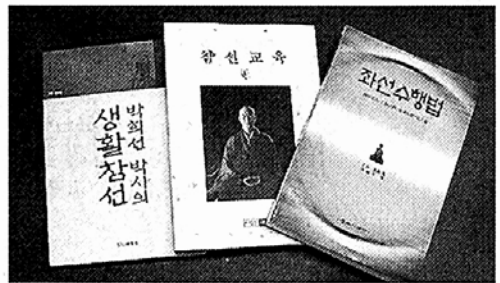
부처님이 왕궁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할 때의 상황을 표현한 조각. 대영박물관 소장.

한국 불교에는 참선·염불·간경·주력 등 다양한 수행 방편이 존재한다. 모두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궁극적으로 반야의 인덕을 향한 뗏목이므로 우열을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수행하는 사람의 태도와 지극함의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뿐이다.

역시 어떤 수행 방편이든 요체는 실천에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달 것 없이 하루에 십분이든 한 시간이든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럴 경우에도 가르침이 필요하다. 선지식을 찾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현대인에게는 수행 그 자체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책은 역시 훌륭한 방편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참선 입문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초심자에게 도움이 될 책은 <참선교육> 도서출판 나그네이다. 모두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의 대표적 선 수행 단체인 ‘수선회’의 오랜 경험이 결집되어 있다. 참선 수행의 실제에 관한 입상 보고서라고도 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이 이상하게 설명되어 있다.

1권은 교과서 격이다.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세법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재적이다. 2



‘참선 교육’ 초심자에게 도움 내용 다양... ‘수행의 임상보고서’

권은 화두선에 집중하고 있다.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 경계 등을 실었고, 실상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한다. 3권은 선문답으로 일관하는데, 원답·정일·진제 선사와 지리산 00선사와의 100문 100답을 실고 있다. 간접적이긴 하나 수행의 깊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선이 비록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주장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자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 것이지 ‘교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라는 수레의 두 바퀴라 할 선(禪)·교(敎) 겸비는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책으로 <좌선수행법>(불교시대사)을 간단히 살펴본다. 『정좌요결(靜坐要訣)』, 『육묘법문(六妙法門)』, 『동공지관(洞空止觀)』, 『사념처(四念處)』 등 천태 지의(538-597)대사의 화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저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좌요결』은 명말 청초의 사대부인 원홍(1586-1656)의 저작으로 천태종의 지관 수행의 비결을 명쾌하게 풀어놓고 있다. 『육묘법문』, 『동공지관』, 『사념처』는 천태 대사의 저작으로 선과 교를 함께 닦는 지관수행법(止觀修行法)의 요체를 담고 있다. 좌선할 때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생업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생활인의 입장에서 선 공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으로는 박희선 박사의 <생활 참선>(원신세계사)을 들 수 있다. 지은이 스스로 실행해 온 신체와 정신 건강법으로서의 생활참선을 소개하고 있다. 초판이 나온 지 15년이 됐는데도 꾸준히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을 정도로 내용의 현실적 용성이 뛰어나다.

‘근본불교’란 석가세존이 설한 가르침을 일컫는 말로, 학자에 따라 ‘원시불교’ 또는 ‘초기불교’라는 말로도 쓴다. 이러한 근본불교를 ‘석존직설(釋尊直說)’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 대승불교의 경전과 교리는 근본불교와 다르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때문에 최근까지도 대승불교가 근본불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는 주장과 대승불교 역시 근본불교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민족사가 펴내는 ‘불교입문총서’의 첫번째 권인 이종표 교수(전남대 철학과)의 <근본불교>(민족사)는 부파불교에 의해 왜곡된 근본불교의 사상을 되살린 것이 대승불교라는 전제 하에, 근본적으로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석가세존의 가르침은 북방

아함경·니까야 교리 체계적 정리 12연기·8경도와 오온과 관계 규명

불교의 한역대장경에서는 ‘아함경’으로, 남방불교의 팔리대장경에는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아함경’과 ‘니까야’에 나오는 근본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전 속 교리를 원전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는 근본불교의 교리

구지를 받아 6년에 걸친 연구 끝에 선보이는 것이다. 전반부에는 ‘월인천강지곡’ 제 1권 194년의 원문과 독일어 번역, 해설을 후반부에는 중세 국어 어휘의 형태

체계는 사성제이며, 사성제를 형성하고 있는 12연기와 팔정도 12입처, 18업계, 5온 등과 어떤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곧 12입처설은 18업계설로 발전하고, 18업계설은 5온설로, 5온설은 12연기설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기설은 12입처설에서 시작해 12연기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지은이는 업설과 연기설이 동일한 사상의 다른 이름임을 지적하며 불교의 업설은 곧 무아설이며, 업설과 무아설 모두 연기설에 바탕을 둔 동일한 사상임을 주장한다. 즉 업설은 있으나 업을 짓고 보람 받는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아는 없지만, 업에 의해 마음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마음으로 업을 지어 모든 존재가 연기한다는 것이다. 또 붓다 당시의 여러 인도사상과 붓다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을 밝히고, 대승불교가 근본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값 8천5백원.

‘월인천강지곡’ 베르너 샷세 안정희 공역



‘대승경전과 선’ 김호성 지음



1449년 세종대왕이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월인천강지곡’이 독일어로 번역됐다. 외국어로는 처음이기도 하다. 유럽 한국학회(AKSE) 회장을 맡고 있는 독

6년 연구끝 독일어판 선비

일 함부르크대 베르너 샷세(Werner Sasse) 교수와 안정희 부교수가 공동으로 번역한 <월인천강지곡>(소학사)은 대산문화재단의 해외 한국학 연

금강경, 유마경, 화엄경, 능가경 등 대승불교 경전을 분석, 그 속에 깃든 선사상을 밝힌 연구서 <대승경전과 선>(민족사)이 나왔다.

인도·대승불교 중심 禪연원 추적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의 1996년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인 수정 보완해 묶은 이 책은 선의 연원을 인도불교,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추적

고 선사상의 형성배경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불교의 사상적 연원이 인도 대승경전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양자의

소 분석 등 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실었다. 또 각주와 해설에 실린 불교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산스크리트어가 지 밝혀 놓았다.

하고 선사상의 형성배경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불교의 사상적 연원이 인도 대승경전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양자의

논리적·철학적·수행적 등 일정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선종의 기원을 인도로까지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고통을 모으러...’ 법장 스님 지음



“제 취미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 바람에 모든 사람들의 근심, 걱정, 슬픔, 번뇌를 모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생명나눔실천회를 설립해 장기급구와 화장사업 운동을 펼치는 법장스님(주지) 스님이 전국을 다니며 실현 법문을 모은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불광출판사)가 나왔다.

전국 돌며 설한 법문 모음집

1권 ‘부처님의 품안에서’는 불법을 만난 인연의 소중함과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가야 한다는 법문을, 2권 ‘덕숭산에 기대어’는 동안거와 하안거 결제·해제일 법문으로 마음공부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3권 ‘맑고 밝은 삶으로’에서는 불교청년회와 교수불자연합회 법회, 교도소 법회 등에서 설법한 내용을, 4권 ‘야단법석’에서는 생명나눔실천회와 불교자원봉사자 워크숍에서 설법한 내용이 담겨 있다. 스님은 책의 인세를 생명나눔 실천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값 8천원.

‘전통사찰 총서’ 사찰문화연구원 엮음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총서>(사찰문화연구원) 16, 17권이 나왔다. 16권(경북의 전통사찰Ⅲ)에서는 고운사를 비롯해 의성군과 인동시, 영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의 63개 사찰을, 17권(경북의 전통사찰Ⅳ)에서는 직지사 등 김천시와 구미시, 문경시, 상주시, 청도군의 54개 사찰을 소개하고 있다. 값 각 권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그곳에 부처도 갈 수 없다	박 우 현	현 암 사
2	영가천도와 49재	대 연 진	민 족 사
3	회색고무신	윤 형 광	시 공 사
4	참선교육1	현 답	도서출판선
5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 지 의	민 족 사
6	빙의	도 심 화	찬 설
7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 재 성	불광출판사
8	성철스님 시봉이야기1	원 택	김 영 사
9	극락은 있다	관 정	붓다의 마을
10	생각수행이야기	법 상	불 광

도서 안내: (02)737-0695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불리학 원리와 좌심경, 정장 禪語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하는 책.

대형 지음 15,000원 원양사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 국내시판 北韓 金剛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神秘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친다는 靈驗

金剛 염주의 神秘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으로 원효대사께서 참선 안거하시던 평안남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악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염주입니다. 金剛必勝염주는 물에 지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神秘한 靈驗으로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염주중에 最高의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상온(현재온도)에서 氣와 원적의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유일의 神秘의 염주입니다. 전설로는 염주를 보면 삼배하면서 꼭 2가지 소망만 마음속에 생각 해야하고 염주를 받은 후 3일전에 어느 누구도 염주를 밟으면 靈驗이 없어진다고 전래되는 염주입니다.

신청문의 전화: (02)704-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원을 아래구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신비의 금강염주 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농협 1127-02-175765

국내 독점판매처 K3 金剛다터 KOREA 서울 중로구 관동동 177 4480 0502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

법장 스님 실법집

나에게 바람이 하나 있는데 입도 없고 밭도 없다. 담야도 담야도 넘치지 않고 추어도 추어도 비지 않는다.

제 취미가 무엇이고 하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 바람에 모든 사람들의 근심, 걱정, 슬픔, 번뇌를 모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모두 지금 제 바람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제가 갈 때 바람 지고 가겠습니다.

- 본문 중에서

법장 스님 생명나눔운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운운으로 실천하고 계신 법장 스님은 1960년 수덕사에 입산, 원담 진상(圓潭眞相)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였다. 1965년 수덕사 인거 이래 양산 봉도사 극락선원을 비롯하여 제법선원에서 정진하였으며, 수행과 포교에 힘써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 총정 표창, 1969년 충남 홍성교도소 수행자에게 수계를 준 인연으로 교화활동을 시작한 이래 광림원이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부어준 덕으로 2001년 제19회 교정대상 본상 부문 제1상을 수상, 1994년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를 설립하여 장기급구 사회사업, 병고에 시달리는 이웃의 병환을 지원, 사회적 복지 운동 화정서약운동 등을 펼쳐 2001년 국민훈장 목련장 수혜 받았다. 현재 수덕사 주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소임을 맡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계신다.

법장 스님 지음 8,000원 / 256면 / 신국판